

항의 서한

서울 중앙지법 단독 22부 소병진 재판장 귀중

지난 5월 7일 저녁 서울 강남역에서 등록 정기간행물 <레프트21>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김지태를 비롯한 6인이 경찰에 불법 연행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2009년 3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 언론사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창간한 <레프트21>은 노동자·민중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진보 언론 중 하나다.

<레프트21> 지지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2회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레프트21>을 판매해 왔다. 이는 대중을 직접 찾아가는 언론이 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타 언론사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행위다.

그런데도 지난 5월 7일 경찰은 등록돼 있는 합법 정기간행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집시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들씌워, <레프트 21>을 판매하던 6인을 도로 한복판에서 한 시간 반이나 불법 감금했고, 마침내 불법 연행해 유치장에서 꼬박 47시간을 불법 구금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지태를 비롯한 6인은 부상을 입고 안경까지 부러졌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요, 심각한 인권 탄압이다. 이른바 ‘법치국가’인 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매우 유감이기도, 법원은 이러한 경찰의 불법 행위와 인권 탄압을 바로잡기는커녕 당시 연행된 6인에게 자그마치 8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내렸다. 우리는 이런 법원의 판결에 커다란 실망감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진보 언론 <레프트21>은 창간 이래 이명박 정부의 이러저러한 잘못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대중에게 진실을 말하고자 해 왔다. <레프트21> 판매자들을 불법 연행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히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처사다.

우리는 6인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언론의 자유와 정의·인권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선 것을 적극 지지하며, 법원이 이들 6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불법 연행과 인권 탄압을 저지를 경찰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행여라도 법원이 정의와 인권을 외면하고, 언론의 자유와 의견 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모든 세력을 모아 강력한 항의 투쟁을 벌일 것이다.

법원은 즉각 벌금형을 철회하고 김지태를 비롯한 6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이름 :

소속(과 직책):

서명 :